

논술, 관심 갖기와 질문하기에서 시작

거창한 글쓰기가 아닌, 자신이 관심 있는 대상부터 솔직하게 표현하는 글쓰기



글_ 이종택 영일고 철학교사

관심 갖기

여섯 살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이상을 웃는다고 한다. 물론 그 못지않게 울기도 한다. 감정 표현이 너무나 많은 이 아이들은 뭐가 그리 궁금한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람을 귀찮게 한다.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신들만의 세상으로 점점 빠져 들어간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진다. 오직 자신과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자신과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작아진다.

논술은 학생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세상에 대해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기를 요구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공부를 왜 하는가? 내 아버지는 지금 쫓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은 올바른 일인가? 논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겪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려고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해답이 흘러나온다. 처음부터 실전 논술 문제니, 대학별 논술 기출 문제 풀이니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논술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법이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논술을 대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왜?’

어린 아이 시절 가장 많이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 라는 질문이다.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 아이들은 ‘왜?’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논술은 어린 아이 시절에 자주했던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왜?’ 는 논술이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본정신이다. ‘왜?’ 는 새롭고 신기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 사물,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한다는 주장을 할 때 그 근거를 찾는 방법은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벌어지는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여기서 한 번 더 ‘왜?’ 라고 질문하면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 자신의 신분이 밝혀진다면 인간의 행위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한 번 더 ‘왜?’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대학에서 논술을 평가할 때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고력의 해답은 ‘왜?’ 속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

논술에 자주 등장하는 거창한 주제보다는 자신

삶의 주변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왜?' 하고 질문 해 보자. 어렸을 때처럼 '왜?' 라는 질문을 통해 선생님들과 주변 사람들을 귀찮게 해야 한다.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사고

논술은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진 논증적 글이다. 여기서 논술을 평가하는 요소는 주장 그 자체가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얼마나 적절한가이다. 적절한 근거가 되려면 첫째,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참이어야 한다. 근거가 거짓이거나, 지나치게 주관적일 경우 주장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제시된 근거가 주장과 논리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어야 한다. 주장과 관계없는 참인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논리적 사고는 관계있는 참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할 때 가능하다.

논술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사고는 완전한 무(無)에서 유(有)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할 때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논리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창의적 사고는 비록 독특한 주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닐지는 모르지만, 논술이 요구하는 논리적으로 연관성 있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왜?' 라고 계속 질문 하는 것이다.

이해하고 표현하기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손이나 몸으로 느끼는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머리 속에서 정리하고, 종합해서 말이나 글, 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 특히 논술은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주장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논술의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 논술 문제를 제출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제가 무엇 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그 사람들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설득력 있는 논술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논술을 읽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도 생각해 야 한다. 논술이라는 시험은 다양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

사소한 일상 생활 속에서 관심을 갖는 방법 - 《집으로 가는 길》

논술은 따지는 글이다. 누가 잘 했고, 누가 잘못 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글이다. 딱딱한 현실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올바른지, 그르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올바른지를 따져야 한다. 이렇게 따져 나가면 이유의 이유를 계속적으로 따져 나가야 한다. 결국 가장 마지막의 이유를 찾아야 이 따지는 과정은 끝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따져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과정이 너무나 멀고, 또한 그렇게 도달한 최후의 이유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정도의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는 따지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절대적인 진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세상에서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한 정신은 대화와 타협이 될 수밖에 없다. 논술은 단순히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 논술은 타인에 대한 이해이고, 배려이다.

《집으로 가는 길》(지아오 보 지음 | 박지민 옮김 | 다산초당 | 232쪽 | 값 8,800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그분들이 살았던 곳은 어떤 곳일까? 그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학교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알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심하게 지나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닐까? 이 책에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거창한 글쓰기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글 속에서 논술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고, 질문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